

'완제품 제조 이후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담배 완제품 생산과 무관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 사용 역시 상표부착 재료에 체화·구현된 상표권에 당연히 포함 된 것이거나 예정된 사용이고, 이는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물품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부착 재료를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 후 그 판매 시 담배 완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활용하였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상표의 사용일뿐 더러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그 밖의 C 계열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원고 주장도, 이 사건 로열티에 C 그룹이 별도의 광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노하우나 영업비밀은 이 사건 물품 자체에 구현·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로열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생산되는 담배 완제품